

전남교육청, 현악기 기부 통한 문화소외계층 학생 지원

초록우산어린이재단-(사)전남문화예술협회 업무협약 예술적 재능 가진 학생 발굴·지원 위한 협력체계 구축

전라남도교육청이 유관 단체와 손을 잡고 문화소외계층 학생의 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현악기 기부를 추진한다.

전라남도교육청은 29일 청사 비즈니스실에서 장석웅 교육감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남지역본부 김유성 본부장, (사)전남문화예술협회 홍의현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현악기 기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남도교육청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남문화예술협회는 이 협약을 통해 예술적 재능을 가진 학생 발굴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들 세 기관·단체는 △ 현악기 기부 및 기타 교육 기부를 위한 상호 협조 △ 학생들의 문화·예술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 △ 예술인재 양성을 위한 학생 발굴 및 대상자 지원 △ 기타 공동 협력에 관한 사항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전남의 학생들이 예술적 감수성으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행복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교 예술교육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예술 분야에 재능을 가진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 및 진로에 맞는 예술활동 등을 지원하는 꿈사다리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예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예술교육 자원을 확보하고 학교와 유관기관, 지역사회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장석웅 교육감은 이날 협약식에서 “문화소외계층 학생들에게 현악기를 기부함으로써 예술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일은 매우 뜻깊은 일이다.”며 “앞으로도 나



남을 실천하는 기관들과 협력하여 전남의 학생들이 예술적 재능을 발휘하고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이슬기자



영암교육청, 영재교육원 개강식 개최

영암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은 28일청사 다목적 강당에서 입학생과 지도교사(11명)가 참석한 가운데 영재교육원 개강식을 개최했다.

이번 영암영재교육원은 초5학년, 초6학년, 중1~2학년 총 3개의 자연과학 학급으로 40명의 학생들이 입학한다.

수학, 과학, 융합, SW 교과 심화과정과 현장 체험학습 및 창의융합 캠프등 창의적체험학습

으로 전년도 학생과 학부모 만족도 결과를 반영하여 촘촘하게 학사 일정을 수립후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개강식은 최광표 원장의 입학 허가 선언을 시작으로 입학생 전원의 선서문 낭독, 학생들의 각오를 다지는 발표까지 진지하고, 힘있게 진행됐다.

영암=조대호기자

순천교육청, 입직기 신규교사 현장맞춤형 연수 실시

유·초등 신규교사 33명 대상

순천교육지원청 최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유·초등 신규교사 33명을 대상으로 입직기 신규교사 현장맞춤형 연수를 실시하였다.

입직기 신규교사 현장맞춤형 연수는 선배가 중심이 되는 멘토·멘티활동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와 관계 맺기, 학생 배움중심 교육과정 재구성, 우리 고장 역사문화 탐방, 교육활동 발표회 순으로 한 달에 1~2회 1년여에 걸쳐 운영될 예정이다.

이날 연수는 선배가 중심이 되는 멘토·멘티 활동으로 교실내외에서 관계맺기 활동인 ‘아

이스브레이킹 ‘SHOW ME THE TEACHER’등을 참가자들과 실천해보는 내용으로 운영되었다.

연수에 참여한 한 신규교사는 “조금은 어색하고 긴장된 마음으로 참여했는데, 멘토선생님들의 따뜻한 환대에 먼저 감동하였고, 나와 비슷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동료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가 되었으며, 멘토님들의 생생한 사례를 접하면서 답답한 마음이 해결되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피력하였다.

이용덕 교육장은 “이번 신규교사 연수는 신규교사와 공감대 마련이 쉬운 멘토강사들이 중심이 되어 연수를 기획하고 운영에 참여하게 되어 더욱 기대가 된다. 신규교사들이 멘토



교사들과 현장의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사례를 공유하며 빠르게 현장에 적응하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신규교사들의 열정이 빛나는 실천이 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격려했다.

순천=김승호기자

광양평생교육관, ‘주말 책 놀이 프로그램’ 운영



광양평생교육관은 3월부터 유아(5~7세)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주말 책 놀이 프로그램 ‘엄마, 아빠와 함께:책과 함께!’를 운영하고 있다. 책 놀이 프로그램은 유아의 독서습관 형성을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독서에 놀이를

접목하여 아이들의 독서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학부모와 함께 독후활동을 하며 가족간의 감정 소통의 기회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수업 주제는 매주 달라지며 놀이 활동 또한 주제에 맞춰 상이하게 진행된다.

1기당 2회로 진행했던 작년 책 놀이 프로그램보다 진행 횟수를 늘려 올해는 상반기(3.19~6.4), 하반기(9.17~12.3)로 나누어 기수별(1기당 6회)로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운영한다. 광양=심종섭기자



영광경찰서·청년회의소 등 5개 기관 홍보활동 참여

영광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는 2022학년도 신학기를 맞이하여 29일 영광우체국 사거리 및 영광초등학교에서 유관기관들과 연합하여 신학기 학교폭력예방과 등교맞이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 날 행사에서는 학생 등굣길을 맞이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과 생활 속 거리두기 홍보를 위해 영광교육지원청, 영광경찰서, 영광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영광청년회의소, 영광초등학교 5개 기관이 함께 홍보활동에 참여하였다.

각 유관기관 업무 담당자들은 학교폭력예방

과 생활 속 거리두기 강조의 메시지를 담은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홍보물과 클린밴드를 배부하며 학교폭력예방과 감염병 예방의 중요성을 전달하였다.

김춘곤 교육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또래들과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캠페인을 진행함으로써 학생들의 등굣길을 격려하고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다방면에서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전했다.

영광=서희권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